

시 초

인 민 들 이 좋 아 합 니 다 (2)

김 영 일

이 채 로 운 풍 경

웃음을 보던 만물을 얼리는 동장군이요
아래를 보면 무더운 여름 방불케 하니
정말 겨울과 《여름》 두 계절이 함께
있는
하늘도 자연도 못 만들 장관이로다

사방천지는 흰눈이요
머리우의 소나무는 눈속에 묻혔는데
그아래 야외온천장에서는
사람들 유유히 온천물속에서 웃고있으니

한여름의 해수욕장이런듯
불깃불깃 사람들 얼굴엔 땀방울 돋히고
시샘을 하듯 찬바람 뽀뽀 불어쳐도
아이들 물장구소리 요란도 하여라

뜨거운 온천물에 몸 담고그 설정부감이라
한두마디로 이 쾌감 다 말할수 있으랴
한겨울에 《여름》이요 《여름》에 눈
구경이라
양덕온천, 온천명소의 제일가는 매력이어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밤
달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
오늘의 행복을 두고 누구나 잠들수 없어
려판의 창가마다에는 불이 밝다네

호실마다에서 떠들썩 울려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솔깃은랑, 박하은랑, 당귀
은랑...

온천장에 터뜨리던 웃음이 실려오네
승마공원의 말발굽소리 울려오네
스키주로 누비던 아슬아슬한 모험담도
그 이야기에 한류 끼운다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에 남기고
이밤에 행복의 노래로 남긴다네
왔던 길 되돌아 가는 아쉬움
누구나의 가슴에 다 새겨져있다네

열번을 오면 아니 백번을 오면
아쉬움 없을까 서운함 없을까
누구는 꼭 다시 오겠다 단단히 버르고
또 누구는 여기 양덕에서 다시 만나자
손을 잡고 약속도 단단히 해두나

아, 양덕의 밤
누구나 잠들줄 모르는 기쁨의 밤
가지가지 이야기에 하나같이 넘치는건
이런 행복, 이런 웃음 안겨주는
우리 원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 행복과 웃음의 이야기
양덕의 밤에 끝을 맺으랴
어이 추억으로만 깊이 새겨두랴
원수님 우리 인민을 위해 펼쳐주실
더 희한하고 더 황홀할 미래가 앞에 있
거니

그 꿈같은 미래 그려보며 알아보며
무아정에 잠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밤
이여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네
더 큰 행복이 더 좋은 매일이
우리의 앞에 있네 우리를 미중해오네



봄 빛 넘 치 는 길

한겨 도시를 맛먹는 휴양지라
무수히 이리저리 뻗어간 보행도로들
내리는 눈도 이 길만을 피해 내리는가
이 길을 봐도 저 길을 가봐도 눈 한점 없네

우리 인민이 가는 길
원수님 인민앞에 펼쳐주신 길
어느때나 언제나 봄빛 마스한 길인것을

더운 길 피어오르는 길
봄날의 길인양 활개쳐 걷는 사람들
치너들 호호 웃음발 날리며 길고
엄마손 놓은 아이
제 먼저 앞서가며 뽀뽀하네

그길 무심히 걷지 말아
우리의 원수님
한겨울에 사람들 오가는 길 열지 않게
보행도로에 난방판을 물어주라
베루신 다심한 사랑 어려있나니

걸음걸음 그 사랑 그 은정 목메이는 길
되새겨보노라 온천명소의 길들뿐이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
적인 식민지통치가 극도에
이르고있던 1929년 가을 어
느날 다섯살쯤 나보이는 아
이가 서당문앞에서 《천자문》
을 출몰 외우고있었다.
《하늘천, 따지, 감을현,
누를황...》

《원, 세상에... 이 마을에
신동이 났수다!》
동네사람들은 아이를 둘러
싸고 연방 감탄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이 코를걸거나 겨우 할
어린아이들 둘러싸고 찬사
를 아끼지 않고있었는지 리
해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
보다가 품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애, 내가 읊는 한자구를
한번 써보겠니?》
난생처음 보는 만년필을
회한해서 이리저리 만져보
던 어린아이는 머리를 분명
히 쳐들고 대답하였다.

《예,》
말투며 옷차림을 봐선 도
회지물을 잔뜩 먹은것 같은
안경쟁이는 제법 온까지 불
어가며 《한해서왕이요, 추
수동장하리라.》 하고 뽀아
냈다.

《아니, 어린것이 그런것
까지 어떻게 알겠소?》
《너무하구만. 쫄쫄...》

모여있던 마을사람들은 너
도나도 한마디씩 하였다. 그
러면서도 호기심어린 눈길
을 어린아이한테서 떼지 않
았다.

아이는 처음 보는 만년필
이 신기한듯 다시금 만지작
거리다가 이내 종이우에 8개
의 한자씩 써놓는것이였다.

《寒來暑往, 秋收冬藏》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은커
녕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그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연방 혀를 찼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이
냐?》 하고 안경쟁이가 다
시 물었다.

《그건 추위가 오면 더워
는 물러가마련이고 가을에
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는 길이 걷사한다는 뜻이
요.》

안경쟁이는 도무지 믿어지
지 않는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슬쩍거리다가 어린것을
덱씩 그러안고 빙글빙글 돌
기 시작하였다.

《너야말로 신동이구나!》
그가 바로 후날 조선문단
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소설
가 석윤기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에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
다》, 《봄우회》,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불
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
《천사들》(1, 2부), 《무성하는 해바
라기들》(1부), 장편소설
《전사들》, 단편소설집
《폭풍시절》...

그의 작품들은 주제사상이
예리하고 인간성을 깊이
파고들며 철학적심도를 보
장하는 명작들이었다. 그는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세실
한 지도력에 4.15문화창작단
에서 혁명문학창작에 전심하
면서 부처 장작에서 일대 전
환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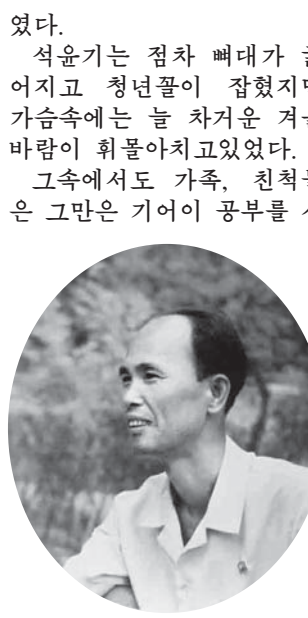
하지만 그것은 수십년이
지나후의 일이고 지금은 락
동강류역의 경상북도 달성군
동천면 불로동(당시)의 가난
한 농가에서 태어난 어린 소
년에 지나지 않았다.

신동, 그렇다. 그 안경쟁
이말처럼 석윤기는 분명 신
동이였다.

그러나 신 동 이 면 무
엇이라.

되고 사는 땅은 있어도 밭
이 없는 땅이었고 식민지악
소민족의 설움을 안고 살아
야 했던 한말은 세월이였다.
실상가상으로 장마로 락동강
이 범람하여 얼마 안되는 소
리까지 묻어버리자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려 고향을 등지
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거기서 그들은 안타까이
찾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사
정은 마찬가지로였다.
하는수없이 고향으로 되
돌아온 그의 가정은 원한서
린 소작살이를 다시 시작하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생의 봄을 준 고마운 품



석윤기선생

켜보려고 무진 예를 써서 겨
우 당시 대우에 있었던 데
물중학교에 입학시키였다.
석윤기는 인차 학교적인
수재성으로 공인되었고 학생
회장으로까지 선출되였다.
그때 학교당국의 부당한 요
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
하기도 하였다.

그는 16살 되는 해에 해방
을 맞았다.

(아, 인제가 인생의 봄을
맞아줬구나.)
태동하는 인생의 봄향기
에 취한 그는 내잠을 안고
대지를 활보하며 《해방만
세!》를 목청껏 불렀다. 그
러고는 떠오르는 회열과 흥
분을 누를길 없애 시 《출
항》을 썼다.

이때를 회상하여 석윤기는
수필 《회고와 신념》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민족재생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것처럼 어
마어마하게 보이던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해
주시였다.

나는 시를 썼다. 철부지
내 눈앞에는 찬란한 햇빛이
래 푸른 바다가 누워있었다.
사랑하는 조국은 장창한 항
문을 앞둔 아름다운 배였다.
갈매기는 날고 물결은 끝
없이 설레이는데 우렁찬 배
고성소리가 울리다. ...그러
하여 그 시의 이름은 《출
항》이였다.》

그러나 그의 상념속에서
출항을 선포한 아름다운 배
는 거대한 압축에 부딪쳐 산
산이 조각나고 말았으니 남
조선에 또다시 기여든 외세
에 의해 열혈청년의 불타는
웨임을 불행과 고통의 시작
으로 되였다.

그는 이 시작품때문에 지
국지한 감방생활을 해야
했고 폐인이 되어 들것에 실
려나오는 운명을 강요당해야
만 하였다.

이때를 회상하며 석윤기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있
었는지 그때는 알수 없었다
고 회고하였다.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
어 쓴 처녀작은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전후복구건설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던 당시 《청년문
학》창간호에 실린 그의 단
편소설은 단편에 문단의 이
목을 집중시켰고 독자들의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그 소설은 그가 어느
한 병동에서 완성시킨것이
었다. 락약과 포탄상자를 싣고

불미속을 헤치며 말걸진 수
송전투임무를 어김없이 수행
하여 《용감한 수송전사》,
《영웅적운전사》로 전선신
문에까지 소개되였던 그는
전선의 만세를 들으며 의식
을 잃고 쓰러졌었다.

그를 진찰하던 야전군의
소 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
하였다.
《아니, 이런 몸으로 3년
을 지탱하다니?》
이미 오래전에 갈비뼈가
은통 으스러졌던데다 석에
는 아예 잘라낸 상태였다. 제
다가 강한 외부적타격을 받
은 것으로 보아서는 척추는 위
험지경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후방깊이에
있는 병원에서 생활하던 그
는 당시 원장사기를 하던
항일혁명투사를 만나 이야
기를 나누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
여 더 잘 알게 되었고 문학
예술에 바치는 그의
심혈과 로고를 대하여 몹시
감동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후방깊이에
있는 병원에서 생활하던 그
는 당시 원장사기를 하던
항일혁명투사를 만나 이야
기를 나누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
여 더 잘 알게 되었고 문학
예술에 바치는 그의
심혈과 로고를 대하여 몹시
감동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위대 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을 형성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지난 시
기처럼 단편적인 면을 내용
으로 한 짚마련이나 단편소
설 같은것을 몇몇 쓰는 식으
로 창작할것이 아니라 대
담하고 통이 큰 작정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
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
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
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
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에도 석윤기는 병상
에서 장편소설 《전사들》을
창작완성하였다.

그는 한편의 작품창작을
한편의 돌격전으로 여기고
는 현시대의 승수된 요구이

품창작에 모든 넋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증편
소설 《전사들》은 인민군
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성한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면서 작품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공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절세위인의 각별한 관심속
에 석윤기는 1961년부터 그
리도 열망하던 현역소설가
로 되였다.
외세의 문화발발에서 꺼
져 가는 초콜과도 같았던 자
기에 인생의 봄을 안겨준 공
화국의 은덕이 고마워 그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대수술을
세번씩이나 받으면서도 창작
의 불태만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

하여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1부)을 세상에 내놓
을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위대한 력
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
족의 창창한 태일을 형성함
에 있어서 자기의 작품에서
는 무엇이든 미흡한데가 있
다는 허전함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이러한 때 위대 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을 형성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지난 시
기처럼 단편적인 면을 내용
으로 한 짚마련이나 단편소
설 같은것을 몇몇 쓰는 식으
로 창작할것이 아니라 대
담하고 통이 큰 작정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
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
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
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
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에도 석윤기는 병상
에서 장편소설 《전사들》을
창작완성하였다.

그는 한편의 작품창작을
한편의 돌격전으로 여기고
는 현시대의 승수된 요구이

고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넋원뿐아니라 새로운 혁명
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
과 임무라고 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석윤기는 탄생을 울리였다.
그길로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대한 품모를 형성한 장편소
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작가동맹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
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작
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
집단(오늘의 4.15문학창작단
의 전신)이 무어졌다.
석윤기도 여기에 망라되였
다. 누구에게나 쉽게 차레지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
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
회 위원장으로서 생의 마지
막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모든 열정과 넋을 강그리 불
태였다.

파면 무슨 힘이 있어 병약
한 몸으로 수십년간 그리도
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
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남
긴 한편의 시에 다 담겨져
있다.

나의 소원은
깨끗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은
원수가 불태우고 짓이겨놓
은 나의 소원은
친애하는 그의 품에 안
기어 소생의 봄을
맞아줬나니
아, 나래 치라 꿈이여!
희망이여!
한없이 부풀어오르라 나의
소원이여!

...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이여라!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작가 석윤기를 자신의 곁으로
또다시 불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길도록 문학
예술건설에 대한 문제를 비롯
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시
를 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
이 지난 어느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약한몸이 격
정되시어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들을 알아보고요 손수 구하
여 보내시면서 튼튼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예로되는것이 있으
면 서슴없이 제기하라는 뜨거
운 정 넘치는 교시를 전달받
게 되였다.

(장군님, 저 같은게 뭐라
고 이렇게까지...)
누구나 제일 기쁠 때 먼

저 떠오르는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모
습이다. 그것은 어머니만큼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
람은 세상에 없기때문인것
이다.
그의 눈앞에는 두고 온 고향
땅, 떠나간 자식의 운명
을 걱정하고있을 남녘의 부
모님들의 모습이 우렁이 떠
올랐다.

(어머니, 난 여기서 인생
의 봄을 맞았습니다. 친어머
니도 못다 준 사랑속에 난
영원히 약속하는 봄날에 살
겠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
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
회 위원장으로서 생의 마지
막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모든 열정과 넋을 강그리 불
태였다.

파면 무슨 힘이 있어 병약
한 몸으로 수십년간 그리도
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
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남
긴 한편의 시에 다 담겨져
있다.

나의 소원은
깨끗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은
원수가 불태우고 짓이겨놓
은 나의 소원은
친애하는 그의 품에 안
기어 소생의 봄을
맞아줬나니
아, 나래 치라 꿈이여!
희망이여!
한없이 부풀어오르라 나의
소원이여!

...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이여라!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작가 석윤기를 자신의 곁으로
또다시 불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길도록 문학
예술건설에 대한 문제를 비롯
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시
를 주시였다. 그로부터 한달
이 지난 어느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약한몸이 격
정되시어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들을 알아보고요 손수 구하
여 보내시면서 튼튼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예로되는것이 있으
면 서슴없이 제기하라는 뜨거
운 정 넘치는 교시를 전달받
게 되였다.

(장군님, 저 같은게 뭐라
고 이렇게까지...)
누구나 제일 기쁠 때 먼